

이코노 & 비즈피플

정 승 농어촌공사 사장

“쌀 소비 감소·기후변화 대응 농어촌 체질 개선”

작목별 맞춤형 농지·밭 기반 정비
간척지 활용, 어촌·해외사업 추진
새 먹거리 창출 ‘자립 경영’ 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정승 사장은 고향 이야기부터 털어놓았다. 8월 나주 빛가람동의 농어촌공사 사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지역 기자들을 만나 고향 마을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승 사장은 “내가 태어난 완도 마을에 100가구 살다 대부분 떠나고 30여가구 남았는데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고향 마을에 정착한 귀농인이 늘고 이들이 이장을 맡기도 하면서 귀농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과거 내 고향마을보다 훨씬 인구가 많았던 학교가 있는 옆마을은 배타적이어서 귀농인이 없다 보니 오히려 내 고향마을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등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농·어촌 관련 업무를 한 정 사장의 경험에서 묻어 나오는 이야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최근 기후 변화, 시장 개방, 농어촌 ‘장수시대’(그는 고령화를 꼭 장수시대라고 표현했다)와 공동화 등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의 사업 구조와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농어촌 관광·체험 수요와 귀농·귀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쌀 소비 감소와 밭 기반 정비 수요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고도화와 구조 개편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풍부한 농어업 경험이 결집될 농어촌공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그는 ‘양손경영’이라고 강조했다. 양손경영은 기존 주력 사업과 신성장동력 사업을 양측으로 육성하고 추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는 “간척지 활용, 어촌·해외 사업 추진, 도심지 저수지 재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

어 ‘자립 경영’을 하겠다”면서 “농어촌 관광·체험 수요와 귀농·귀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쌀 소비 감소와 밭 기반 정비 수요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고도화와 구조 개편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성숙기에 접어든 농지은행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려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쌀 생산 중심의 생산기반 관리에서 벗어나 작목별 맞춤형 영농이 가능한 농지 범용화, 밭 기반 정비 등 정책 대안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철학도 탄탄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또 심해지고 있어 상시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상습 피해지역과 노후 수리시설을 미리 정비하고 현대화하겠다. 기존 수리시설 내진 보강을 강화하는 건 농어촌공사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시급한 지구부터 시작해 1년 안에 내진 보강을 마무리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과학적으로 물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도 확충하겠다는 그의 계획이다.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로 옮겨온 지 3년이 됐고 이제는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는 혁신도시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그는 전남대 경제학과,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원(행정학 석사), 강원대 대학원(농경제학 박사)을 졸업했다.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일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03.38 (+5.80)	금리 (국고채 3년) 1.43% (0.00)
↑ 코스닥 624.19 (+2.02)	↓ 환율 (USD) 1135.00원 (-8.10)

‘1조’ 금호타이어 인수 후보 오늘 윤곽

콘티넨탈AG 등 관심...박삼구 회장 ‘우선 매수권’ 행사 관심

하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금호타이어의 매각 ‘예선전’의 윤곽이 9일 드러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를 통해 진행되는 금호타이어의 예비입찰을 9일 오후 2시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에 매각하는 지분은 2009년 위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채권단이 보유하게 된 6636만8844주(지분율 42.01%)다. 7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시가 약 7167억원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1조원 안팎의 가격에 매각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2위, 세계 12위 타이어업체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생산라인과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매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자동차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업계에서는 독일의 콘티넨탈AG, 일본 요코하마타이어, 인도 아폴로타이어 등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티도 인수 전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26.4% 줄어드는 등 경영실적이 변수가 될 수는 있으나, 매각의 흥행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점쳐지는 듯하다.

그러나 관심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인수전에 뛰어든느냐에 쏠린다.

우선매수청구권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금호타이어의 경우 박 회장이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가를 수용하면 우선협상대상자에 앞서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들고 있는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지난해 7228억원의 가격에 금호산업을 인수한 박 회장이 1조원 안팎에 이르는 금호타이어까지 인수할 만한 여력은 부족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금호산업에 이어 금호타이어까지 되찾아 그룹 재건을 완성하겠다는 박 회장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룹 차원에서 금호타이어의 매각 입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파업·내수 위축...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량 9% 감소

임단협 마무리...생산성 향상 기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올해 10월까지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가량 줄어, 목표 달성에 비상이 켜졌다.

8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생산량은 39만603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만3363대에 비해 8.6%인 3만7327대 줄었다.

이 기간 차종별 생산량은 쏘울(전기차 포함)이 13만 5467대로 작년 동기(17만9589대)보다 24%가량인 4만 4122대 감소했다.

쏘울은 내수(37%·1205대), 수출(24%·4만2917대) 모두 감소했다.

스포티지는 16만3294대로 작년 동기(13만1122대)보다 24%가량인 3만2172대 늘었다. 스포티지는 내수(17%·6187대), 수출(27%·2만5985대) 모두 증가했다.

봉고 트럭은 7만1710대로 작년 동기(8만8059대)보다 18%가량인 1만6349대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회

한전, 인프라 구축 사업 2차 공모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오는 18일까지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2차 공모한다.

앞서 지난달 2주간 시행한 1차 공모에서는 366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급속 충전기 382기, 완속 충전기 806기 등 1188기를 신청했다.

2차 공모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인 간 총선 인프라 설치 합의, 충전시설과 부속시설을 설치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배정 등이 갖춰져야 한다.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전요금은 아파트 공용요금과 분리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며 사용자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충전하고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자영업자 소득세 중간납부 하세요”

국세청 30일까지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16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납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면 1월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납 가능 금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발송된다.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6

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다가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생긴 경우엔 이를 받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명 전월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기를 3개월 유예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건 축 물 에 예 술 을 입 히 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미스카넷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elpa.co.kr](#)에서 만나보세요!

5분 이상 물로 가릴 때도 물이 새지 않게
안전하게 들어가는 신희 방수방수 시스템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군 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 디자인자 잔 엔지니어와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마감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단열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종로문화센터 옥상방수
시공사례

한양대학교/강원대학교/전남대학교/태백시보건소
양정시립도서관/양정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새로운 혁신! 세상 어디에도 없던 디스포저
세계최초 BLDC 전자모터 음식물 분쇄기

SDR 황금맷돌

SMART DISPOSER ROOT

2016 International CES
LAS VEGAS, January 6-9
(미국 2016 CES 출품)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발명특허제품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

10년 보장(모터) 10년 보장(모터)

3년 연속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CES
한국특허
환경부
동부화재

상/담/문/의
(062)515-1144